

# <차례>

분석편 .....	3
출제 방향, 변한 것은 없는 것인가? .....	4
그래서 길러 문항을 어떻게 없앤다는 소리인가? .....	6
정리를 마무리하며 .....	8
문제편 .....	9

##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 Attribution (저작권정보 표시)

저작물 ·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Noncommercial (비영리)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분석편

매년 있는 일입니다.  
3월이 시작되고, "선생님, 올해 수능 국어 출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는 것은,  
특히나 2023년 같은 경우, 7월에 갑작스럽게 출제방향이 바뀌었기에  
그래서 더 불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4년 수능은 갑작스런 출제방향 변화로 대처하기 힘들었다는 점,  
그 점으로 인해 국어에서 말린 분들이 많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말 분들도 존재할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정부에서 말한 수능 출제방향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 출제 방향, 변한 것은 없는 것인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의 주요 차이점

정부에서는 수능이 끝난 당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물론 이 자료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진실이라고 말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보도자료와 24년도 보도자료를 비교하여, 출제방향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학년도부터 '고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는 것을 새로운 원칙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2024학년도에도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합니다.
3. 영어영역에서 2024학년도에도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EBS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출제합니다.
4.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을 차등 배점하고,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출제하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원칙은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출제 방향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2024학년도에 '고위 "킬러문항" 배제'와 '적정 난이도 문항 출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p align="center"><b>23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 문서에서 킬러라는 표현을 찾아보았다.</b></p>	<p align="center"><b>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 문서에서 킬러라는 표현을 찾아보았다.</b></p>

- ✓ 고위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2024학년도 출제방향에 추가됨
- ✓ 2024학년도에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그 외에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출제방향에서 사용된 단어나 표현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 영어영역에서 간접연계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 문항 난이도를 고려하여 차등 배점한다는 점, 선택과목 간 난이도 균형을 고려한다는 점 등은 표현상의 큰 차이 없이 두 해 모두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국어 영역의 출제 방향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출제 원칙과 방향은 유사합니다. 두 해 모두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4학년도 출제 방향에서는 2023학년도와 달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경감 대책(9.3.6.)에 따라 고위 "킬러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였다."

이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의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배제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해 출제 범위를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외에는 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 설정, 다양한 제재의 활용, 사고력 중심의 평가, EBS 연계 출제 등의 원칙은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길러 문항을 어떻게 없앤다는 소리인가?

2024학년도 국어 영역에서 고위 "길러문항" 배제를 위해 적용한 방법론

1. 교육과정에 기반한 출제: 국어 영역의 평가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벗어난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 파일에 따르면, "평가 문항은 국어 영역의 출제 과목인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어 영역의 모든 문항이 해당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출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역량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개념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 암기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국어 능력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 ✓ 이러한 교육과정 기반 출제 원칙은 2023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2024학년도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 내용을 벗어난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배제하는 데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적정 난이도 문항의 고른 출제: 변별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교육을 통해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여, 특정 난이도에 문항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 2024학년도 출제 방향 파일에는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보다는 개념의 이해와 적용,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출제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 ✓ 또한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을 차등 배정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항 출제 시에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점을 차등화함으로써 특정 난이도에 문항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 이와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였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암기나 주입식 학습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습의 방향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3. 문항 형식의 다양화: 특정 문항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특정 유형에 대한 과도한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 출제 방향 파일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출제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하되, 폭넓고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의 담화와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어 영역의 평가 문항이 특정 문항 유형에 집중되기보다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 또한 "단일 지문과 복수 지문,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지문의 유형과 수를 다양화함으로써 특정 지문 유형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고, 포괄적인 국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출제진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 ✓ 아울러 "문항 형식도 단답형, 선다형 등으로 다양화하였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어 영역의 문항이 특정 문항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출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 사고력 중심의 평가: 단순한 암기나 문제풀이 요령보다는 국어 교과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였습니다.

- ✓ 출제 방향 파일에 따르면,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어 영역의 평가 문항이 단순한 암기나 이해 능력보다는 고차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 또한 파일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였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고력 요소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 출제진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 ✓ 한편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개념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어 영역의 평가가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EBS 연계 출제: 국어 영역에서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 EBS 연계 교재를 통해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출제 방향 파일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공표한 대로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어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EBS 연계 출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 연계 방식과 관련해서는 "연계 방법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EBS 연계 문항이 단순히 EBS 교재의 문항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 및 재구성되어 출제됨을 의미합니다.
- ✓ 한편 2024학년도 출제 방향에는 "영어 영역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어 영역에서 EBS 연계 출제 방식이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어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24학년도 국어 영역에서는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50% 수준으로 연계 출제를 진행하되, 문항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국어 영역의 특성에 맞게 개념, 지문, 핵심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및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연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2024학년도 국어 영역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평가를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킬러문항 배제 기준이나 난이도 조정 방식 등은 공개된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리를 마무리하며

사실 25학년도 수능 공부 방향성에 대한 파일을 2024년도 3월 26일에 업로드할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움이 될만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보도자료에 EBS연계에 대해서 정리된 문제 파일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제 편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연계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제편

**[예시 문항 1] 국어 8~11번 세트의 8, 9번**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 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 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 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 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 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EBS 교재 『수능특강 - 독서』 199~202쪽 1~5번 세트의 지문과 1, 2번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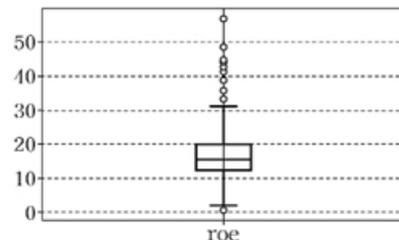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잘 수집하여 분석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자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잘 처리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특히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는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어야 좋은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치는 정상적인 범위 밖에 있는 값으로,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분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하나의 이상치가 데이터 평균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이상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분포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사분위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어떤 하나의 속성에 대하여 알려진 데이터 값들을 일렬로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순서로 나열했을 때 50% 위치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모두 순위를 세어 준다. 이때 자료 개수가 홀수이면 앞에서 센 순위와 뒤에서 센 순위가 같은 값이 중앙값이다. 자료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중앙값을 제2사분위수라고도 한다. 중앙값보다 작은 값들의 중앙값을 제1사분위수라고 하고 중앙값보다 큰 값들의 중앙값을 제3사분위수라고 한다.

	salary	sales	roe	industry
0	1095	27595.000000	14.1	1
1	1001	9958.000000	10.9	1
2	1122	6125.099902	23.5	1
3	578	16246.000000	9.9	1
4	1368	21783.199219	13.8	1
...	...	...	...	...
204	930	1509.099976	9.8	4
205	525	1097.099976	15.5	4
206	658	4542.600078	12.1	4
207	555	2023.000000	13.7	4
208	626	1442.500000	14.4	4

<그림 1>



<그림 2>

사분위수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쉽게 해 주는 것이 상자 수염 도표이다. <그림 1>은 209개 기업의 CEO의 연봉(salary), 기업의 매출(sales), 수익(roe), 업종(industry)을 보여 주는 표의 일부이다. 표의 가장 왼쪽 열은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행의 고유 번호로 '인덱스'라고 부른다. 이 표에서는 0번 행부터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림 1>에서 열 이름이 'roe'인 열의 데이터 값을 모두 선택하여 상자 수염 도표를 그린 것이 <그림 2>이다. 상자 수염 도표의 핵심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상자'이다. 상자의 윗면이 제3사분위수를, 아랫면이 제1사분위수를 표시해 주고, 상자 안의 가로선은 제2사분위수, 즉 중앙값을 표시해 준다. <그림 2>에서 제3사분위수는 20, 제1사분위수는 12.4, 중앙값은 15.5이다. 이상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IQR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IQR는 'interquartile range'의 약자로서, 제3사분위수와 제1사분위수의 차이, 즉 상자 수염 도표에서 상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roe 열의 IQR는 20-12.4=7.6이다. 이상치는 허용 상한값보다 크거나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값인데, 일반적으로 허용 상한값은 IQR에 1.5를 곱하여 얻은 값을 제3사분위수에 더한 값이고, 허용 하한값은 IQR에 1.5를 곱하여 얻은 값을 제1사분위수에서 뺀 값이다. 데이터 분포의 특성에 따라 IQR에 1.5가 아닌

다른 값을 곱하여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 어떤 값을 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수행한 분석이 향후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느냐로 판가를 받게 된다. roe 열에서는 허용 상한값은  $20 + 7.6 \times 1.5 = 31.4$ 이고, 허용 하한값은  $12.4 - 7.6 \times 1.5 = 1.0$ 이다. <그림 2>에서 상자 윗면에서 나와 허용 상한값까지, 또 상자 아랫면에서 나와 허용 하한값까지 뺀어 있는 직선을 '수염'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위쪽으로 뺀 수염의 끝은 허용 상한값을 ㉔ 표시하고, 아래로 뺀 수염의 끝은 허용 하한값을 표시한다. <그림 2>에서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 밖에 작은 원으로 표시된 것은 이상치에 해당한다. <그림 1>에서 생략된 부분에 이상치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측치는 데이터의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가령 결측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결측치를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에서 10행의 정보를 갖는 데이터를 보면, salary 열에 2개, sales 열에 2개, roe 열에 1개의 데이터 값이 NaN으로 표시되어 있다. NaN

	salary	sales	roe	industry
0	1095.0	27595.000000	14.100000	1
1	NaN	9958.000000	10.900000	1
2	NaN	6125.899902	23.500000	1
3	578.0	16246.000000	5.900000	1
4	1368.0	NaN	13.800000	1
5	1145.0	NaN	20.000000	2
6	1078.0	2266.699951	16.400000	2
7	1094.0	2966.800049	16.299999	2
8	1237.0	4570.200195	10.500000	2
9	833.0	2830.000000	NaN	2

<그림 3>

은 'not a number'의 약자로 어떤 이유로 해당 수치가 알려지지 않은 결측치에 해당한다. ㉑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삭제와 대체가 일반적이다. 삭제란 결측치를 포함하는 행이나 열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데이터 값도 함께 ㉒ 삭제되면서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해당 행이나 열을 삭제해도 다른 데이터 값들이 충분히 많아서 데이터의 충실성이 지켜진다면 삭제를 시행할 만하다.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해당 열의 확보된 데이터 값들의 평균 또는 중앙값이 많이 사용되고 해당 값의 직전 행 또는 직후 행의 데이터 값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대체는 추가적인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㉓ 대체하는 값으로 인한 데이터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 01 윗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결측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② 결측치의 처리는 데이터 분석 도중에 필요에 따라 수행한다.
- ③ 제2사분위수는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 ④ 제1사분위수는 데이터 값 중 최댓값의 25%의 크기를 갖는 값이다.
- ⑤ 이상치를 판정하는 기준은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2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 분석 전에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 ②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제1사분위수보다 크거나 제3사분위수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 ④ 데이터 분석을 교란하여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⑤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시 문항 2】 국어 18~21번 세트의 19, 21번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집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배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부구에 연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A] “흉적은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무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 집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 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 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웁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실사오니 ㉢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배풀 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아오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내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 수이 차도를 일사오면 남두성 잡아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 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며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감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감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배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진」 -

19.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EBS 교재 『수능완성 - 독서·문학·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145~147쪽 24~27번 세트의 지문과 24, 26, 27번 문항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뜰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들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은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어지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하고 묻사오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괴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은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여 있었다.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오이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이하어 십 년 고생을 이토록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 사람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오.

[중략 부분 줄거리] 병마 대원수 도총독이 된 김원은 아귀에게 납치된 세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김원은 자신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에 내려왔음을 공주에게 밝힌다.

공주가 이 말을 듣고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하며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 갈을진대 하늘의 해를 다시 보려니와 장군의 재주

가 어떠한지 모르나 저놈의 조화가 무궁하니 어찌 제어하리오?”

원수가 말하기를,

“어쨌거나 변신을 할 것이니 놀라지 마시고 소장의 변신한 것을 은밀하게 가져다가 그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에 싸서 들여가소서.”

하고 즉시 몸을 흔들어 작은 주먹만 한 수박으로 변신하였다. 공주가 행어 수문 장졸이 알까 두려워서 넉치지 수건에 싸서 옆에 끼고 ㉢대아문에 다다르니, 수문장이 군사를 불러 분부하되,

“대장군 분부에 아무 시녀라도 중문 출입에 몸을 뒤져 보라 하여 계시니 명령대로 출입을 자세히 살피라.”

하니, 문졸이 명령을 듣고 일시에 달려들어 몸을 뒤지려 하였다.

공주가 그릇을 땅에 놓고 붉은 치마를 떨치고 가로되,

“빨래하러 나온 시녀가 무엇이 몸에 있으리라 하느냐?”

수문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들어가라 하거늘, 공주가 그제야 그릇을 옆에 끼고 안으로 들어가 ㉣아귀가 자는 협실에 놓았다. 원수가 그제야 본모습을 내어 문틈으로 엿보니, 아귀가 손에 비수를 들고 머리를 동이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레 같고 아홉 입으로 숨 쉬는 바람에 방문이 여단히니 칠마산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이놈이 비록 흉악하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므로 신낭이 없어 음양(陰陽)을 몰랐다. 상하 여인을 도적하여 시녀를 삼아 좌우와 거처에 위풍만 보이려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여인이 삼천여 명이요 나졸이 수십만으로서 위엄이 제후의 나라보다 더하였다.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구간에 준마 천여 필이 매여 있고, 동편 곳곳에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 천하에 이름 없는 은근한 치국의 기틀이 었다.

원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놈을 세상에 머물러 두면 천하에 큰 근심이 되리라.’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세 공주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에, 십여 일이 지나매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칼에 상한 대가리가 거의 다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함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가지고 권하기를,

“대왕의 상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셔서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이 말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반쯤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잠을 자려 하였다.

막내 공주가 아귀 곁에 앉아 말하기를,

“보검을 놓고 잠을 자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을 자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그 말이 괴이하지 않으니 받아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칼을 주었다.

공주가 칼을 놓고 아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즉시 비수를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 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함께 **아귀가 자는 방**에 이르러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매운 재를 준비하였다가 아귀의 아홉 머리를 다 베어 내치거든 즉시 재를 온몸에 뿌리소서.”

약속을 정하고 비수를 메고,

“아귀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아귀가 잠을 미처 깨지 못하여 기지개 켜 때 자세히 보니 온몸에 비늘이 돋혀 있었다. 아귀가 잠을 깨지 못함을 보고 칼을 들어 아홉 머리를 치니 아귀의 아홉 머리가 일시에 떨어졌다. 여러 여자가 일시에 **재**를 끼치니 아귀인들 어찌하리오? 머리 없는 등신이 일어나며 대들보를 받으니 대들보가 부러졌다. 아귀가 한 식경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거꾸러지거늘, 공주 등이 아귀가 죽었음을 보고 분분하게 치하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24

▶ 23051-008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비복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승상 부부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이다.
- ② ㉡은 김원이 자신의 정체를 가족들에게 드러내는 데 실패한 공간이다.
- ③ ㉢은 공주가 김원의 초현실적 능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김원과 공주가 아귀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아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주의 제안을 거절하는 공간이다.

26

▶ 23051-008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 소설에서 변신을 하는 주체는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신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정체를 숨기는 과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타자의 결정에 따라 변신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 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였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십년 고생’을 하는 동안은 김원이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라는 속성이 승상 부부에게 노출되지 않은 시기라 할 수 있다.
- ② 옥황상제가 남두성에게 ‘십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허물을 쓴 것은 타자의 결정에 따라 변신을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김원이 ‘십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소년 선동’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은 변신을 통해 자아의 속성이 다른 대상에게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김원이 공주에게 ‘어쩔거나 변신을 할 것’이라 말한 것을 볼 때, 공주가 변신한 김원을 데리고 아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원에게 남두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려는 공주의 의도가 드러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김원이 ‘그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에 싸서 들어가소서’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김원이 ‘몸을 흔들어 작은 주먹만 한 수박으로 변신’한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체를 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27

▶ 23051-0087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과 ㉠의 공통점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기존 세계’에 있던 김원은 지하국이라는 ‘다른 세계’에 진입하여 공주를 만납니다. 이처럼 ‘기존 세계’의 존재가 이물(異物)에 의해 강제로 ‘다른 세계’로 끌려가거나, 주인공이 이물에게 붙잡힌 대상을 구출하기 위해 힘든 관문(關門)을 뚫고 여러 과업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구조의 서사는 설화에서 소설에 이르기까지 흔히 나타납니다. ㉠아래 설화를 읽고 윗글과 비교하여 감상해 볼까요?

옛적에는 순창 읍내가 남원군 체계산 밑 적성강가에 가까이 있었다는데 그때 순창의 원님이 내려오면 그날 밤 체계산 금돼지가 내려와서 원님 마누라를 업어 가고 업어 가고 하더라. 그래서 순창골 원으로 온 사람은 모두 마누라를 빼앗겼지. 그런데 어떤 원이 새로 내려와서 그 금돼지가 어디 사는가 알아보려고 원님 마누라 몸애다 명주실 꾸리를 한끝을 매어 놓고 한쪽은 방애다 두고 실이 풀려 나가게 해 놓았다. 한밤중쯤 되니까 금돼지가 내려와서 원님 마누라를 업고 달아났단 말이지. 이쪽에서는 명주실 꾸리를 풀어 주었어.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원님은 사령들한테 총이랑 같이랑 창이랑 군물을 들려 갖고 그 명주실 간 데를 좇아 따라갔어. 그러니까 실은 체계산 위에 있는 굴속으로 들어가 있더라지 뭐야.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들어 다니는 문은 큰 독으로 딱 막아 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그 독을 치고 굴안으로 들어가 보니 금돼지는 어디 가고 없고 원님 마누라하고 다른 여자가 아홉이나 있더라. 원님은 자기 마누라랑 여러 여자를 모두 다 구해서 나왔다. 그 굴은 지금도 체계산에 있어. (후략)

- 임석재 채록, 「원님 마누라를 잡아가는 금돼지」

- ① 이물이 있는 곳이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주인공이 있던 ‘기존 세계’와 대비되고 있어.
- ② ‘다른 세계’에 진입한 주인공이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의 영웅성이 부각되고 있어.
- ③ 주인공이 ‘다른 세계’의 이물과 대결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주인공이 이물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계’의 존재가 넘어서야 하는 관문이 나타나 있어.
- ⑤ 이물에 의해 ‘다른 세계’로 끌려온 존재들의 행위로 인해 이물이 주인공에게 가하는 위협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